

기후위기 대응·생태전환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2025년 생태전환 프로그램' 본격 추진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세가지 영역으로 이뤄져

공모 선정된 도내 62개 학교, 세 영역 중 하나 택해 실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학교의 생태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생태전환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책임있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고자 기획됐으며, 전북교육청이 중점 추진하는 10대 핵심과제 중 'ESG 실현'에 해당한다. 생태전환 프로그램은 △ESG 교육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전환 프

젝트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이뤄졌다. 이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62개 교에서는 내년 2월까지 세 가지 영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면 된다. 먼저 'ESG 교육'은 전문가와 교사의 협력 수업을 통해 학교가 환경(E), 사회(S), 투명경영(G)의 가치를 실천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며, 학생 수업과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함께 진행한다. 이어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엔(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불평등, 소비와 생산 문제 등을 다루며 중·고등학생들의 세계시민적 소양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마지막으로 '생태전환 프로젝트'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로컬푸드 활용, 생태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환경 교육을 실천하는 것으로 학생 주도형, 교과융합형, 지역사회 연계형의 형태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최근 학교 환경교육 감사단, 생태전환 프로그램

운영학교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당부초 신지혜 교사는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에 ESG가 포함된 것이 반갑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며 "생태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지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생태전환 교육은 단순한 환경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많은 학교가 생태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21일 개최

7개국 전문가 참여... 그린수소정책 등 논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학 본관 23층 완주·우석 전관대 W-SKY 23에서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대학30'의 진입에 도전하는 우석대학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수소 얼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지·산·학·연 수소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제포럼에는 국제 연료전지 기술의 표준화를 총괄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연료전지 기술위원회(TC 105) 이흥기 의장(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겸 글로벌30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프랑스·미국·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의 수소연료전지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

해 각국의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모빌리티 정책, 국제표준화와 연료전지 상용화 간 연계성, 최신 기술 개발 및 R&D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IEC TC 105는 1999년 설립된 연료전지 분야 유일의 국제표준화 기구로 현재 3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정형 전력 플랜트부터 수송용 연료전지, 보조 전력장치, 휴대용 전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료전지 기술의 국제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이흥기 의장은 "이번 국제포럼이 세계 각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와 상용화의 접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석대학교와 완주군이 주도하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국제협력과 기술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청렴 실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

전북교육청, 편편한 청렴 다짐 릴레이

서 교육감 등 25명, 10월까지 메시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청렴 실천 의지를 내내에 알리는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고위직이 함께하는 Fun-Fun'한 청렴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고위공직자가 정기적인 청렴 다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분청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자발적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렴다짐 릴레이는 서거석 교육감과 유정기 부교육감, 각 국장 및 과

장 등 총 24명의 고위공직자가 매주 순차적으로 부서원들과 함께 청렴 실천 메시지를 담은 사진 또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후 감사관실 누리집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자로 서거석 교육감이 참여했다. 서 교육감은 "맑고 청렴한 당신이 전북교육의 열쇠입니다"라는 청렴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다음 주자로 유정기 부교육감을 지목했다.

특히 릴레이 캠페인 종료 후 최우수 1편(상금 50만원), 우수 3편(각 30만원), 장려 5편(각 10만원) 등 우수 콘텐츠 총 9편을 선정, 시상할 계



획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말 발표된다.

이흥열 감사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고위공직자들이 전하는 청렴 실천 메시지가 전북교육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청렴 문화 형성과 청렴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부서장들께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청렴 다짐 릴레이에 참여한 서거석 교육감.



한일장신대학교 교수노조, 직원노조, 심리상담학과, 실용음악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회 등이 학교 정상화 촉구 및 총장 선출 방해 세력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전북교육청, 학교시설 안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6월 13일까지 도내 964개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소관 건축물에 대해 기관별로 담당자를 구성, 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변 지반침하 △내·외부 균열 및 마감재 상태 △부대시설(운동·체육·난간) 관리 상태 등이다. /장은성 기자



지난 1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일대에서 '상반기 취업박람회(JBNU JOB FAIR)'를 개최했다.

지역 전체가 함께하는 특별한 취업박람회

전북대, 진수당 일대 '상반기 JBNU JOB FAIR' 개최

글로벌대학30 협약 지역대학 공동 주관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업·기관 30여곳·도내 취업준비생 3000여명 참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전북지역 대학생 및 청년 구직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4일 전북대 학생취업진로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수당 일대에서 '상반기 취업박람회(JBNU JOB FAIR)'를 개최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주공용복지플러스센터와 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위해 협약 체결한 대학들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지역대학 간의 상생을 모색하는 '플래그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SK하이닉스, 네이버클라우드, CJ제일제당, 삼성전자, 유한양행,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굴지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30여 곳이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이모레퍼서피, 전북은행, 한솔홈데코 등은 별도의 채용설명회를 가졌다.

이 외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캐리커처, 인생네트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취업 스트레스에 지친 학생들의 긴장을 달랬다. 또한 아이스크림, 솜사탕, '취업기원떡' 등 간식도 무료로 제공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외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캐리커처, 인생네트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취업 스트레스에 지친 학생들의 긴장을 달랬다. 또한 아이스크림, 솜사탕, '취업기원떡' 등 간식도 무료로 제공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한편, 전북대는 오는 하반기에도 연계 박람회를 추가 기획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2년 연속 선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025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직원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주교대는 올해 새롭게 전북대학교(쥬기움인)와 컨소시엄을 구성, 에듀테크를 활용한 'R.I.S.E-test'를 도입해 다양한 전략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북·전남 도서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춘 총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풀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일장신대 교수노조 등, 학교 정상화 촉구

'가짜 신입생'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한일장신대 신입생 허위 입학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일장신대학교가 교수 해임에 이어 일부 학과 폐과 추진으로 또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3월 새학기 개강에 임박해 운동처방학과 교수 3명을 해임한 것에 대해 "교수 3명에 대한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러 실용음악학과, 상담심리학과 학생·교수·직원들은 학사 개편 자격이 없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의 폐과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청회 이후 지금은 학교 폐과 추진 절차가 멈춰있는 상태다. /장은성 기자

이에 대한수교장로회 총회의 정기 감사 기간에 한일장신대학교 교수노조, 직원노조, 심리상담학과, 실용음악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회에서는 학교 정상화 촉구 및 총장 선출 방해 세력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실용음악학과 및 심리상담학과에 일방적인 폐과 추진 반대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3인의 부당 해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복직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수업 정상화를 방해하는 이사장과 보직세력에 대한 규탄 △학교의 구조조정과 학사 행정을 사유화하고 있는 이사장 및 특정 집단의 총장 선출 지연 및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비판 △운동처방재활학과 및 대학원 수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AI 기반 실무형 평생학습 모델 구축

전주대, 'AID 류음강좌' 운영기관 최종 선정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2025년 AID 집중과정: AID 류음강좌'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평생 학습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사업은 전북 지역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디지털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14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 비즈니스 브랜딩 과정(Local Business Branding Course)'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AI 시대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 △AI와 함께하는 마케팅 전략 △AI 기반 SNS 브랜딩 등 3개의 직무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또한, 사전 기초 강좌로는 △나만의 프로필 포트 사용법 △데이터 처리 기법 △로컬 브랜딩 기초이론 △생생형 영상 콘텐츠 제작법 등이 포함돼 있어, 학습자의 디지털 이해도에 따라 체계

적인 이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설계됐다. 데이터 기반 경영 분석, 생생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SNS 플랫폼을 통한 브랜드 노출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강의는 온라인 영상, 실습, 과제, 프로젝트 발표를 결합한 마이크로러닝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성취도에 따라 디지털 배지(은·금)가 발급되며, 이는 전주대학교 정규 교과과정(RPL) 학점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인학습자 중심의 AI 기반 평생 교육 모델을 고도화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